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5
May 2015
Vol.3 No.5

- 가정의 달 행사
- 주안에만남 / 주안에만말씀
- 교육부 / 한어청년부
- 사역국 탐방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계기사 2면〉





■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감사의 선물 "해피 마더스데이!"

지난 5월 10일 어머니날을 기념해서 교회에서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대접받는 부모님들에게는 크지 않은 행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노력과 정성을 모아 만든 행사였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흠여 놓치는 분이 계실까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가슴에 달아드린 카네이션은 그 전날 토요일 달콤한 늦잠을 뒤로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비전체플에 모여든 20여명의 청년부원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다. "공장"이라고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리본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손재주를 발휘해 꽃사지를 만들어 드디어 리본과 코사지가 만나 그날 부모님들의 가슴을 예쁘게 장식했다. 장장 4시간 넘게 작업해 500여 꽃사지가 만들어졌고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도 했지만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 맛스러움이 더해졌다.

2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서둘러 교회를 나서는 부모님부터 여기 저기 모여 식사를 나누시는 부모님까지 일일이 찾아가 유자차, 대추차, 매실차 등의 전통차와 커피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65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에게는 손수 디자인한 감사의 문구가 담긴 아주 예쁜 머그잔을 선물하기도 했다.

예쁘게 흰 셔츠와 검은 바지에 빨강색 나비넥타이로 포인트를 주고 쟁반에 각양 각색의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한분이라도 놓칠세라 동분서주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은 정작 자신들



의 점심식사를 뒤로 미루고 치룬 행사였다. 유초등부에서는 빨대와 여러가지 색종이로 꽃병에 담긴 꽃처럼 보이는 쿠폰을 만들어 고사리같은 손으로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했다. 쿠폰에는 10분 맛사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동생과 잘 놀아주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방 청소하기 등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멋진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했다.

이 곳에서 맞이하는 어머니날 혹은 아버지날은 대한민국에서의 어버이날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일가 친척을 포함한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이곳 미국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손에 잡히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일수이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생활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바쁘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버티지는 일상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턱없이 모자르게 만들고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을 이민은 오히려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한다. "난 지금 이렇게 고생해도 이 고생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마음 하나로 오늘도 힘겨운 삶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모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과 혼란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의 마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두발을 굳게 땅에 붙이고 견뎌내는 각자의 일상 속에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이해되어지는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의 수고가 허망한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부모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의 전해지는 찌릿함과 그 꽃을 가슴에 달며서 느껴지는 먹먹함을 서로 알아주고 알게 되기를...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서 가족간에도 이기심이 팽팡해지는 세월을 견디고 이겨야하는 진정한 크리스찬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길 빨간 카네이션처럼 붉은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느껴본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만남(벨리)

마음 담긴 섬김·따뜻한 미소 "사랑해요, 축복해요"

지난 5월 17일 벨리채플 주안에만남이 16분의 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01호실에서 있었다.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영상으로 진행되는 교역자 시무장로 소개, 평신도 사역훈련원 이정미 집사의 주안에교회 교육훈련 내용 소개 등 프로그램의 진행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 소개는 지난 4월호 주안에 뉴스레터에 소개되었다.

벨리채플 주안에만남을 위해 새가족부 봉사자들이 매우 정성스럽고 품위 있게 준비하였는데 식탁의 냅킨,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용한 꽃화분은 놀라운 작품이었다. 흰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나비넥타이, 앞치마 복장은 깨끗하고 산뜻했으며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제공된 과일접시는 예술. 주안에만남에 참석하신 새가족들에게 주안에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주안에만남에 오신 성도들은 다양한 연령층이었는데 본인들을 매우 편하게 소개하고 주안에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려는 마음을 밝힐 때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금번 주안에 만남을 위해 벨리채플 새가족국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보았다.

새가족국장 홍영표 집사는 “가능하면 많은 새가족들이 만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



는 데에 집중하였고, 분위기를 편하게 마련하여 새가족들이 주인공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방길 장로는 “주안에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새가족국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경륜과 봉사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오신만큼 주안에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셨으면 좋겠다.” 김선자 권사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통하는 것 같다. 새가족국원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어서 기뻐다. 주안에만남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사라 집사는 “영혼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

사하다. 다른 색깔의 다양한 풍선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듯 새가족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즐겁게 봉사하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단 한번뿐인 소중한 주안에만남에 새가족 모든 분들이 꼭 참석하시길 소망한다.”

주안에만남은 새가족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교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는 모임이다. 그러므로 아직 주안에만남에 참석하지 않으신 새가족께서는 꼭 참석하시기를 권한다.

새가족들이 주안에만남을 통하여 주안에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며 주안에교회 평신도사역훈련원이 제공하고 있는 신앙훈련에 참여하며 잘 정착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시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주안에말씀

18주동안의 경건훈련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평신도 사역훈련원이 주관하는 주안에말씀 3기 통독훈련이 벨리는 지난 2월 4일(수), 세리토스는 6일(금)에 각각 시작하였으며 벨리 8명, 세리토스 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6월 3일과 5일에 각각 마치게 되었다.

통독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통독훈련 인도자로는 김용수, 김경일 장로, 주석희, 오승현 전도사가 섬겼다.

늘 그랬던 것처럼 3기 통독훈련도 시작만 뒤로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큰 아쉬움을 남기고 마치게 되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일독하였다는 기쁨과 함께 스스로를 대견하게 느끼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통독에 참가한 모든 성도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그러기에 지난 기에 통독하고 그 다음 기에 다시 참가하는 성도들의 마



음을 헤아릴 수 있다.

18주를 매주 모여 20장씩 읽고, 집에서 50장을 읽으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다. 말



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주었고, 참가자 모두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 김경일 기자 |

■ 중보기도국(세리토스)

□□는 맨손으로 13만 적군 물리친 '비밀병기'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특권이며 능력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제자이고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인들이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

그 연결 방식의 하나가 기도이다.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고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생명인 것이다.

기도는 또 특권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거대한 우주 만물과 온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크신 분이 나 같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까지 상대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또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작은 새도, 곤충도 모두 그 분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 더더욱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분이시다(마10:30).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세세히 사랑하시고 상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상대할 수 있다. 나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 십 억 명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내가 고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답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다. 따라서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다.

또한 기도는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시 145:18-19, 요일5:14-15).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잘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가 그 준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여 구하고 주시는 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단자에 전깃줄을 꽂고 전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또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요청 하나씩 펼쳐가며 부르짖으며 어느덧 나의 문제까지 풀려

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주안예교회 중보기도 팀이다. 주안에 교회 중보기도 팀은 빨리 채플과 세리토스 채플로 나누어져 있고 세리토스 채플에는 1부, 2부 예배 때와 수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각각 모여 중보기도를 한다.

나는 일정이 겹쳐 1부 예배와 목요일 저녁만 참석하지만 이 시간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아무리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도 기도 방에만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거짓말처럼 한 순간에 사라진다. 교회와 예배, 목사님과 설교 그리고 기도 요청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아마도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은 진리이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늘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지 않는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요청이 들어온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 치료도 해 주시고 또 깨끗이 거두어 주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기독교식 진리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주시며 그 응답은 우리의 간증이고 증거이며 계속 기도하는 이유이다.

1부 중보기도 시간에는 십 여 명 안팎의 적은 수의 인원이 모여 기도한다. 그렇지만 기도의 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기드온의 삼 백 용사가 가진 것은 외관상으로는 나팔과 횃불과 향아리뿐이었다. 무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미디안의 13만 5천 용사를 물리쳤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무기는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함성이었고 이는 바로 기도였다. 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능의 능력이 이들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십삼만이 아니라 백 삼십만, 천 삼백만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도의 힘을 굳게 믿고 매 시간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요사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최혁 목사님과 주안예교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다. 이들은 많은 세상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주안에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중보기도 팀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문학적 숫자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 조성운 기자 |

■ 주안에말씀 간증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임경순 집사

주안에말씀 통독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페이지 수에 걱정하며 언제 끝마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쌓여가는 페이지와 시작하였는데 끝마쳐야하지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구역전서에서는 읽기도 어려운 인물들과 지명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한주한주 지나며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

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특히 로마서의 구원과 마태,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의 전개와 역사하심에 점점 내 마음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무소불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내리시며 거역하는 자에게는 응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의 삶에 말씀에 순종과 더불어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써 본분에 어긋나지 않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

을 하면서 정말 유익하고 은혜로운 통독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주위의 많은 교우들에게 꼭 동참하라고 권고하고 싶은 심정을 전한다.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신 김경일 장로님, 오승현 전도사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들어오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

류봉녀 권사

‘주안에말씀’ 통독을 시작한지 벌써 15번째 주가 되었다.

그동안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처음 2주는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 왜냐하면 소리 내어 같이 따라 읽어 내리기에 바빠서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과 음미할 틈이 없었다.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숙제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을 먼저 읽고 간 주부터는 말씀이 눈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올해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한번, 성경통독반에서 한번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으



려고 나하고 약속했다.

그 동안엔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해서 읽다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읽고 하기를 반복하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서 끝낸 적이 없었다.

지난주에 구약성경을 다 읽고 나서 말씀에서 오는 감동과 나하고의 약속을 지킴에 기쁨이 두 배였다.

이젠 신약성경 통독이 남았지만 사실 신약은 많이 읽어서 쉽고 재미있게 넘어 갈 것이다.

이제 남은 3주... 더 열심히 통독해서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소감문을 제출한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 장로님과 오 전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 세우기를

오철호 집사

약 2천 년 전인 듯 긴 시간, “주님! 성경 1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시 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내온 횡수가 어느덧 30년이 자카와지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많은 시간이 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머리에, 가슴에 들어있는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항상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문득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원망스러움으로 바뀌고 있을 즈음, 단 한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주님께서 하신 것인지 주안에교회(주안에말씀)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18주 진행되는 동안, 어느 편 일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한 두 번은 skip해도 될 것 같았지만 내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통독반에서 함께 읽으며 매일 10장씩

늦은 시간일지라도 꼭 읽고 자는 습관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이번 1독이 2독, 3독, 4독...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토대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우기기를 꿈꿉니다. 진실한 믿음생활을 하며 주님을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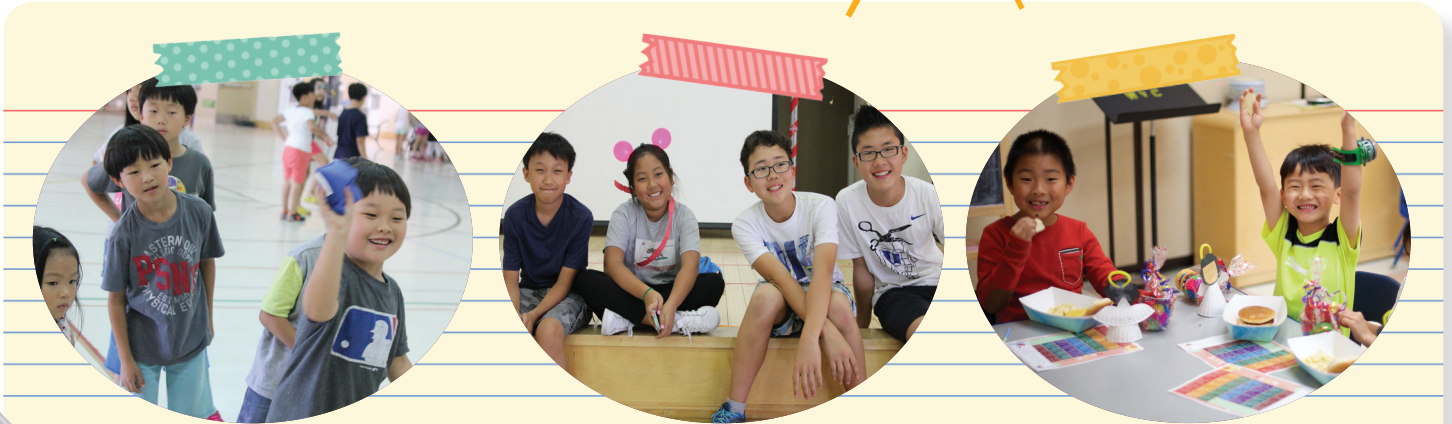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통독을 완주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교구장님 부부와 여러 손길들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 어린이날 행사

Children's Day BBQ



On Sunday, May 3, 2015, we had a Children's Day BBQ. It was a time where our children were greatly loved by the older ones from the church. I would say the BBQ was flavored with much love from numerous people: our education department deacon leaders planned and prepared the ingredients; our parents helped out with preparing the BBQ and grilling the meat; our hyungs, oppas, nuns, and unnis from Coramdeo also helped with

grilling the meat and serving hamburgers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All together, over 120 children and youth students enjoyed this love-filled BBQ on our Children's Day. In addition, on Saturday, May 2, 2015, we had a Children's Day Carnival. The Hesus members set up all kinds of carnival games, such as tic-tac-toe toss, balloon dart, soccer goal, bean bag toss, badminton toss, etc. The children had a great time playing these carnival

games, eating cotton candies and other yummy snacks, and winning prizes from playing the games. I think what made this year's Children's Day Carnival & BBQ so amazing was that our children received love from all the older ones from the church: Hesus, Koramdeo, parents, deacon leaders, and others. God is good!



Pastor Isaac Seong



Marci 김 집사(벨리 ICY부장):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주안예교회 Next Generation 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하나됨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2일 열린 작은 카니발에서 ICY, EM, KM학생들의 발란티어로 솜사탕,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노트 등 여러 부서가 운영되었습니다. 각 부스를 선택하여가며 IC KIDS 친구들은 게임을 즐기며 친구들과함께 어울리며 형들의 섬김을 받는 주 안에서의 연합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5월3일 주일 점심은 코람데오 KM과 EM의 청년들과 KIDZ 아빠들의 땀과 정성이 들여진 수제 햄버거가 중등부까지 포함된 전 교육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협력하신 손길들을 통하여 양질의 율가닉 풀을 먹인 소고기 패티가 제공되도록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세워지고 성경공부시간에는 크래프트를 통하여 말씀이 아이에게 심

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함께 연합되어 동생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연합과 헌신의 장이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쁨의 은혜가 흐르는 한편의 소망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질 교육부와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세의 집사(벨리 KIDZ부장):

가정의 달 5월 첫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뜻깊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육부 한 부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EM청년부까지 우리 주안예교회 교육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자라난 환경이 다른 이 세대들이 청년부 형, 오빠를 보며 섬김을 배우고 청년부들은 2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연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On May 3, 2015 ICKIDZ had an amazing Children's Day Banquet. We had a really big connection with God. We were all together and were praising God together. We even had an extremely fun face painting station!

We had an amazing sermon and a really good worship time. We were all connected with God when we were praising. We were able to feel that the Holy Spirit was with. Blessing all of us. We could all feel that God was proud of us for being focussed on God all throughout the time. All of us were so elated and excited to praise God.

Also we had such a great lunch. The gifts that they gave us were really fun to play with too. I personally really liked it. It was amazingly amazing! The lunch was also very delicious. We all sat together and socialized. We learned new things about each other. We were connected together. All happy and excited.

Children's Day Banquet was amazing. We were all connected and happy! We were praising God altogether. I loved it!



Leah Chang

ICY Summer Retreat



자녀들이 치루는 영적전쟁에 기도와 후원을

2014년 겨울수련회를 벨리채플에서 치른 것이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뜨거운 여름 햇살처럼 뜨겁게 치뤄질 여름수련회 일정이 잡혔다.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이 지난 겨울수련회를 교회에서 치루는게 했던 웬지 모를 미안함을 보상해줄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BIG BEAR LAKE CONFERENCE에서 6/2~24(주일~수요일) 3박 4일동안 샘킵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I DO!" 라는 주제로 치뤄진다. 50여명 정도로 예상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나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는 성경구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지난 겨울 "COME BACK HOME"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주의 신부된 자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세를 갖추기를 전심으로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중고등부 교역자들과 리더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겨울수련회 때도 많은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 뜨거움이 식을까 노심초사한 교육부 사역자분들과 불타는 금요일 밤을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쭉다 못해 아직 어린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찬양의 밤을 이어 왔었다. 이런 열심과 사랑이 아이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고 드디어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굳건하게 만들 때가 온 것이다.

상황과 형편을 보자면 지난 겨울에 비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아이들의 삶 역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치열하고 마음을 조금만 느슨하게 먹으면 당장이라도 잡아 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어릴적 즐겨보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

램이 있다. 평온하다 못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초원에 물을 찾아 동물들이 모여들고 한가로이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 사이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주시하는 우두머리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사냥에 성공해야 하는 가족을 거느린 맹수도 숨어있다. 잠깐만 경계를 늦추면 맹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무리를 향해 뛰어들고 아무생각없이 풀을 뜯던 동물들 중 한 마리는, 적어도 한 마리는 맹수의 한끼 혹은 몇일을 견딜 식량이 되고 만다. 맹수는 사냥을 하러 달려갈 때 우두머리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병약한 놈이나 어린 새끼들이 주 타겟이 되고 추격전이 시작되면 그 복사통에 어미도 자식을 챙길 겨를없이 순식간에 자식을 놓치고 만다.

우리의 삶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 매일 치루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오염되어 버린 세상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노출되었으며 우리가 자각하기도 전에 우린 다음세대를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연고로 일년에 한번 내지 열심을 내면 두번 치뤄지는 수련회에 어른들의 지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도로 이미 하늘 위 하늘에서 치뤄지고 있는 영적전쟁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고 물질적인 후원 역시 따라 주었으면 한다.

불황이라는 말도 이젠 새롭지 않게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참가비 170불"은 어찌면 학생 중 누군가 수련회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3박 4일 중 어느 한날은 시간을 내어 쫓기듯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습득하는지 그 감동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

TV를 켜면 드라마는 물론 예능프로그램도 내 눈가를 적실 때가 있는데 마음을 돌려 우리 아이들의 이 절박하기 조차한 수련회 현장을 찾아와 차가운 물 한잔이라도 건내며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물질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마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어줄 것인지 그 사랑을 전했으면 한다.

대통령의 아들이 내 집에 함께 산다면,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하듯 할까 잠깐만 생각해드려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장면이 수십개는 있을 것이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자녀이기 이전에 주안에 한 형제요 자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먼저 저된 자로서의 책임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채은영 기자 |



| Donation List |
|------------------------------|
| Scholarship (\$) |
| Cup ramen (120/ 10 boxes) |
| Water (10 of 2.5 gallons) |
| Caprisun (80, 8 small boxes) |
| RedBull (2 dozens) |
| Snack size chips (5 boxes) |
| Tangerine (2 boxes) |
| Fan (6 of them) |
| Pens (100 cheap on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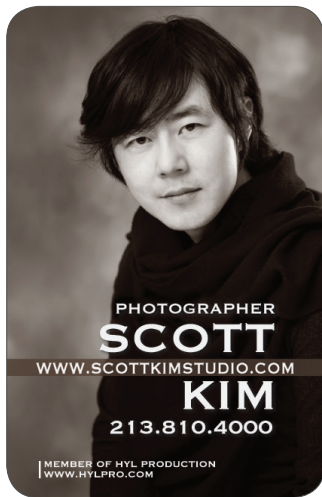
■ 물댄동산 사역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기쁨이

4월 25일 토요일, 주안예교회 세리토스 KM 청년부는 물댄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벨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온 적도 있었고, 청년부에 몇몇 목장이 연합해서, 그리고 세리토스 청년들끼리 다함께 갔었던 적도 이미 몇번 있었습니다. 물댄동산이라는 곳은 플러튼에 위치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선교센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곳 부근에 그리고 조금 떨어져 살고 있는 장애인들도 함께 모여서 찬양이나 그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안예교회 청년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종종 물댄동산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미 주안예교회 청년부가 방문하기 전부터 그곳을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저희 청년부는 여느때와 같이 비전체플에
함께 모여 기도
로 준비
하는 모임을 가졌습
니다. 그
날에 있을
예배와 교
제 그리고
그 가운데
섬기실 찬
양인도자,
특송 준
비자, 그
리고 물댄
동산과 그
안에 함께
하는 장애
우 친구들



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음식도 준비하고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물댄동산은 갈 때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가에 상관없이, 물댄동산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곳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부여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말도 하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던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름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어 조금씩 찬양을 부르게 된 변화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이 손들고 찬양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또한 그 한명 한명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붉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갖고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에 더욱 힘쓰고 마음쓰지 못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쉽게 빼앗기는 그러한 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회개케 하심을 느낍니다. 처음보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을 의식하는 그러한 내 모습들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가서 하는 일은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것들 뿐임에도 그 시간에 정말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표정과 모습들을 장애인 친구들에게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혜민 (청년부) |

물댄동산은...

비영리 선교 기관으로서 이사야 58장 10.11절 말씀을 기초로 설립된 모임입니다.

모임의 목적은 실생활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장애인 단체가 되고자 하고 있으며,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고백을 기초로 이웃 장애우들과 함께 영적인 또는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후에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5시반까지 이어지고, 6시부터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2달에 한번씩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 이성우 전도사 |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어린 영혼들 예배자로 세워가는 소명에...

이명재 전도사 (교육부 디렉터)

1987년경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나 신앙적 이슈들로 성경공부들을 찾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피부로 만나게 되는 행로의 첫 발걸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의 부름이 있어서라기보다 말씀을 사모해서 가계된 신학이었고, 신학교에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피부로 경험한 것이 그분 안에서 삶의 진로를 정착시키게 된 큰 계기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남가주사랑의 교회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며 사역 훈련과 청소년 제자양육반 보조교사로 훈련 받았고, 졸업 후 타교회 교육부 사역자로 섬김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사역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된 후 한 사람이 온전히 서기위해 어린나로부터 가르침을 통한 바른 시작이 중요함을 알게되었고, 한사람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자의 모습대로 세워가는 것이 참 귀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부터 시작해 그 다음의 성장단계를 수월히 거치면서 터득하고 배워야 할 각 부분의 성장과 삶의 단계들을 함께 도와가며 필요한 변화를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같이 협력해 가야할 부분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함께 서는 공동체에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교육의 목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지향하는 교육의 내용으로는 Discipline, Leadership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 Implementation, 교사교육,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추길원하고 이 모든 것 전에 아이들, 학생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 그 아이들이 성장과 심령의 변화/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디자인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건강히 세우고 타인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의 가치관을 통해 넓은 시야, 마음을 품고 주위에 좋은 영향이 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working with children/students for many years. At the beginning year, it was very hard to understand children. One day,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see the inside and understand the thoughts of children and their value, my

goal was set on towards working with children. As time went on, I looked for a more professional and effective ways of teaching and approaching them in my overall career field both in ministry and education. I was interested in curriculum, admin/system, teaching method, and also paid attention to parent education (general and biblical). It was great chance to experience all those areas in order to have better support and education for students. My goal of ministry and education is to provide children and students the best environment that works with parents with a clear goal for each one as God designed. Parents and staff will support God's children with active nurturing and learning that include all areas of development, problem solving, and building characters. I would like to invest my time for this young people's years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as to prepare one child into the whole person as a true worshipper in their lives.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꿈이 성취 되기를

김유진 전도사 (영유아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에 교회 교육부 전도사로 섬기게된 김유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언니가 바이올린 그리고 제가 첼로를 연주하며 저의 나이 다섯살 때부터 많은 교회에서 찬양연주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자리에 리더로서 섬기셨고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로 섬기시며 어린이전도 협회, 복지사역, 교회 유치원 원감, 예배 음악 사역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도우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손길이 부족한 곳에서 섬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좇아, 열심히 배우고 전도하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온 후로부터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과 도우심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공부하고 있었던 음악과 간호공부를 내려놓고 교회 찬양팀에서 그리고 오케스트라 디렉터로 섬기며,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 오랜 세월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한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주안교회 교육부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요일:1:5) 그리고 빛이 있으라(창1:3) 라는 말씀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비취주셨던 사랑에서 생명이 되었던 구원의 빛, 세상 속에서 하나뿐인 진리의

빛, 파스하고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의 빛, 예배와 찬양 속에 임하는 영광의 빛, 아픔과 고난 속에서의 위로와 치유의 빛,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비추는 희망의 빛,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힘도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삼으신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문학과 삶

영원의 바닷가에서 그분이 날 부르는 소리가...

이 시를 대할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노교수의 모습이 있다. 검은색 빨데 안경에 변함없는 빨간 나비 넥타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라 학생으로 그분의 강의를 들은적은 없지만, 신촌 철길 너머로 들려온 이 시의 해석은 끝을 모르는 혼돈으로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한 한 여대생을 오늘까지 여전히 감동으로 사로 잡는다.

알프레드테니슨(1809-1892)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계관시인이다.

종종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시는 테니슨의 나이 팔십 세에 지은 것으로 최후의 작품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시를 그의 시선 집 맨 끝에 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듯 싶다. 그의 장례식에서 아내가 이 시를 낭송했던 이유도 이 시가 그에게는 “백조의 노래

(swan song)”를 의미했기 때문일까?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게 부르는 백조의 노래!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테니슨이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의 경계인 모래톱에서 서서, 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을 그리며 읊은 시에서 이제 저자의 죽음에 대한 시선을 따라가 본다.

‘고요한 바다’나 ‘깊은 물결’은 죽음과 그

사주를 넘어서 (백조의 노래/ Crossing The Bar) Alfred Lord Tennyson/ 김동길 역

| | |
|--|--|
| 해는 지고 저녁 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누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의 신음소리 없길 바라네 |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here be no moa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
| 움직여도 잠자는 듯 고요한 바다 소리거품 일기에는 너무 그득해 끝없는 깊음에서 솟아난 물결 |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o full for sound and foam,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
|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어 | Turns again home. Twilight and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
| 떠나가는 내 배의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일랑 없길 바라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찌나 |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farewell, When I embark. For tho' from out our bourne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
| 나 주님 뵈오리 직접 뵈오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 the bar. |

뒤에있을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 세계 모든 신화에 나타나듯, 죽은 자가 스틱스강이나 요단강처럼 커다란 물을 건너는 장면처럼, 모래톱(sand bar)은 육지와 바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그려진다. 석양(sunset)이 지고 저녁별(evening star)이 뜨고 황혼(twilight)녘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evening bell)는 다 죽음과 관련된 어

두운 이미지로 그려져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어둠을 밝혀 주는 별 그 자체의 이미지는 ‘신’이라는 절대적 타자와의 대화이면서 그 신에게로 다가가는 매개체로 나타난다. 해가 지면(sunset)서 날이 어두워지듯 이제 테니슨의 인생도 황혼으로 물들고 있다. 그리고 저녁 별(신)이 나타나 맑은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그는 이제 신을 따라 죽음의 세계인 저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진실로 굳건하고 경건한 믿음의 시인인 테니슨은 죽을 앞에 서서 두려움이나 이별의 눈물과 헤어짐의 서러움보다는 저녁(죽음)을 지나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그를 인도해준 인생의 길잡이였던 신과의 만남을 그리며 오히려 황홀한 감정에 빠져드는 듯 보인다. 하늘 집을 옛 본 사람들의 찬란한

기대같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보이는 집, 주님 위해 예비하신 집이시네.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 하였네. 나 주의 얼굴 그 곳에서 뵈오리...”

서미숙 기자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단호박 샐러드 Sweet Pumpkin Salad

1. 재료 <8인분>

단호박 1개 중간 크기, 보라색 고구마 2개 중간 크기, 삶은 달걀 6개, 호두 1/2컵 (4 ounce), 건포도 1/2컵, 씨저(Cesar) 드레싱 3/4 cup (6 ounce): 마요네이즈 드레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후추 가루

2. 만드는 법

- 1) 단호박은 4조각으로 잘라 속을 깨끗이 빼고 껍질째 잘 씻어 놓는다.
- 2) 고구마는 껍질째 씻어서 깍두기 크기로 잘라

- 3) 찬물과 삼방이로 준비된 냄비에 단호박과 고구마를 넣고 불에 올려 16-18 분간 쪄다.
- 4) 단호박과 고구마가 찌지면 바로 냄비에서 다 큰 용기로 옮겨 식힌다.
- 5) 식힌 단 호박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 놓는다.
- 6) 삶은 달걀은 호두 크기로 잘라 놓는다.
- 7) 큰 용기에 위의 재료 호두 건포도와 Cesar dressing 을 넣고 살짝 섞는다.
- 8) 후추가루를 넣고 다시 섞은 후에 상에 올린다.



*보리빵이나 현미밥이 곁들여 진다면 한끼의 식사로 부족함이 없는 웰빙 식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념을 가볍게 하는 것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소금 설탕 지방과 열량 섭취를 줄여준다.

박창신 기자

과수원 가꾸기

탐스럽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려면...

나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꽃 중의 여왕 장미는 향기가 좋고 한 두 그루만으로도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꽃이다. 관리만 잘하면 4월부터 성탄절까지 꽃을 피워 많은 사랑을 받는다. 간단한 관리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기본적인 여름철 장미 관리 요령을 소개한다.

● 물 주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물 관리인데 물은 1주에 한번 정도만 뿌리까지 스며들 정도로 준다. 대개 1갤런 정도 주는데 잎에다 뿌리지 말고 밑의 뿌리 부분에 준다. 물은 오전 일찍 주는 것이 좋고 스프링클러로 매일 잎이 젖게 되면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거름주기

흙이 비옥한 경우는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 주는 것이 좋다. 비료는 물에 타서 주는 것이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다. 일반 비료를 주어도 좋고 장미비료(rose food)를 주어도 좋는데 4월



부터 10월까지만 주는 것이 좋다.

● 해충과 질병 관리

장미에 가장 흔한 해충은 진딧물(Aphids)인데 처음 발견되었을 때 물 호스를 중간 정도 세기로 하여 씻어주면 효과적이다. 2~3일 계속해서 씻어주고 안되면 Neem Oil이 포함된 살충제를 뿌린다.

또 치명적인 질병은 흰가루병(powdery mildew)인데 방지하면 나무 전체에 퍼져 꽃을 볼 수 없게 된다.

역시 초기에 물로 씻어 주거나 심하면 Bon-Neem이나 Daconil이란 약제를 살포하면 효

과적이다.

● 꽃이 시든 가지 자르기

꽃이 피고 시든 가지는 가지 밑에서부터 4~5장만 잎을 남기고 윗부분을 모두 잘라준다. 꽃이 시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가지 끝부분에서 새 순이 나와 꽃이 다시 피는데 가지가 약하고 꽃도 작게 피는데 꽃이 시든 가지를 잘라주면 강한 가지가 나오고 크고 화려한 꽃이 피게 되며 장미 나무도 건강하게 된다.

● 장미 가지치기

장미는 매년 1월경에 약하고 병든 가지들을 모두 잘라주고 연필 굵기만한 가지를 3~4개 정도만 남기는데 무릎 정도 높이로 잘라준다. 아주 튼튼한 가지는 좀 더 길게 남겨도 좋다. 가지치기를 한 후 휴먼기 스프레이(Dorman spray)를 해주면 흰가루병, 탄저병, 흑반병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nnews123@gmail.com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Sweet Peace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노래는 애달픈 양식(mode), 아무도 보지않는 암흑속에서 조그만 율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대중 음악계의 음유시인이라 할만한 고 김광석의 “나의 노래” 가사 한 구절입니다. 그에게 ‘노래’는 힘이며 삶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삶의 부분이 아니고 전부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노래’는 빼놓을 수 없는 감정표현의 수단입니다. 슬픔, 기쁨, 사랑, 미움, 위로, 응원 등 모든 감정의 영역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노래 가운데서도 찬양의 노래를 가까이하며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경건하게 부르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노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013년 10월호 ‘찬송가 산책’ 첫회 프롤로그로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로써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영혼의 고백” 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한 노래’가 있겠지요. 달콤한 평화를 느끼게 하는 노래 말입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찬송가가 바로 그런 곡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There comes to my heart one sweet strain...” 영어 원제(原題)는

‘Sweet Peace(아름다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일세. Peace, peace, sweet peace! Wonderful gift from above! Oh, wonderful, wonderful peace! Sweet peace, the gift of God’s love!” peace, peace라고 반복되는 영어가사를 음미하며 조용히 따라 부르면 눈부신 낙원에 펼쳐지는 평화로운 장면이 연상되는 곡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Mendota 태생인 Peter Philip Bilhorn(1865-1936)이 작사와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 여러 곳에 선발돼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1883년 무디 부흥 집회에 초청되었다가 부흥사인 George Pentecost 목사님을 만나 큰 감동을 받고 전도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도단은 이동할 때마다 많은 집으로 큰 애로를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덩치 큰 오르간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에 빌혼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용 오르간(portable organ)을 고안하고 제작합니다. 영동하게도 이 사건은 사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전쟁시에 이동을 자주하는 수많은 군인 교회에서 이 오르간을 필수로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접이식 오



르간 회사를 설립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그는 그 수익금을 모두 복음전도 사업에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1886년 여름 미국 Ocean Grove에서 큰 캠프집회가 열렸는데 빌혼이 독창자로 초대되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라노 디바레스트 여사로부터 자기 목소리에 맞는 곡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혼은 이 여인에게 어떤 내용이 좋겠냐고 물었다니 “Oh any sweet piece 아무거나 감미로운 곡” 이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piece 작품’이란 단어에서 힌트를 얻은 그는 같은 발음의 ‘peace 평화’란 단어가 생각나서 ‘Sweet peace 아름다운 평화’라는 모티브로 후렴가사를 먼저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887년, 대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곡을 붙여 발표하였습니다. 빌혼은 2천편 이상의 복음찬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86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260장)도 그의 작품입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5년 6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은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